

경남·부산양돈조합장에 당선된 박철곤씨

◇……지난 3월 13일 치열한 선거전 끝에 단 6표차(202 : 196)로 제4대 경남·부산양돈조합장에 당선된 박철곤씨(42세)를 만나보았다.

박 조합장은 72년에 양돈에 첫발을 들여놓은 이후 19년간 한눈 팔지 않고 애오라지 양돈에만 전념해온 전문양돈인이다. 지금은 경남 김해군 한림면에서 2,500두 규모의 삼광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경남·부산양돈조합 설립때 견인자 역할을 하기도 한 박 조합장은 양돈협회 일에도 남다른 열성을 발휘, 김해지부장을 취임한바 있으며, 제1검정소와 양돈회관 건립때는 이의 필요성을 앞장서서 강조해 양돈인들의 여론을 선도하기도 했다.◇

“양돈사료공장 설치·운영할 터”

— 인터뷰 : 김동성 —

— 당선 소감은…

박조합장 : 먼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기쁨보다는 능력이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워준 조합원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합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선거를 통해 조합장을 지지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

원간에 앙금이 남아 조합일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일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터

박조합장 : 이번 선거는 너무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가름됐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고, 또 저희 조합원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조합에 적극 동참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발이 부르도록 열심히 일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보답할 작정입니다.

— 조합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조합은 공개를 원칙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할 터

박조합장 : 조합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최

우선 목표로 설정해 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의 주요구매품, 즉 자산이나 사료의 구매시에는 가격을 공개적으로 결정하고, 문호를 개방해 조합원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조합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이나 희생이 있더라도 조합을 위해 공동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강요와 모순된 사고는 완전 배제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책임기간중 어떤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지...

양돈전문사료공장 설립 중점 추진 방침

박조합장 : 먼저 조합운영의 쇄신을 기하고 양돈전문사료공장과 돈육가공 판매점 설치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쟁시대에 대비해 전업양돈농가를 지원 육성하고, 계통출하사업의 확대와 도매시장,육가공공장에서의 도축경매 우선순위를 재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조합원에게는 신용사업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일정 한도액의 즉시 대출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원거리 조합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경남 동부와 서부지역에 지소를 설치하겠습니다.



▲ 제 4 대 경남·부산 양돈조합장에 당선된 박철곤 조합장

- 타지역의 경우 협회와 조합과의 관계가 어색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인지...

협회와 조합은 상호 보완관계

박조합장 : 우리 조합은 협회가 모체가 되어 만들어졌고, 또 협회 회원들에 의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양자간에 어색한 분위기가 있으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조합은 경계 사업을 하고 협회는 조합이 할 수 없는 농장외적인 정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호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은 경제적 이익이 나면 협회

를 적극 지원해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각오입니다.

- 최근의 농축산물 수입개방에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농촌은 뿌리고 도시는 꽃,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들어

박조합장 : 도시인을 위해 농촌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촌은 뿌리고 도시는 꽃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이 번영할 수 있는 바탕위에서 농축산물 수입문제를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